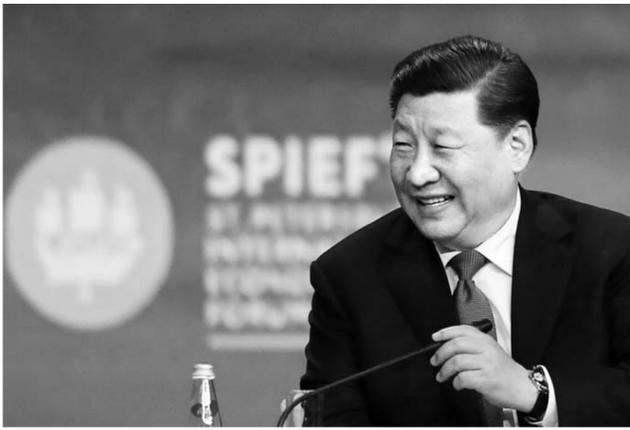


시진핑 무역전쟁 우군 확보 외교전 가속

러시아 이어 중앙아시아 순방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방문
G20 정상회의 앞두고 美 압박



시진핑 “내친구 트럼프”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 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포럼 총회에 참석 중 미소짓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총회에서 “미·중 관계가 붕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내 친구(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러한 의향이 없다. 나는 그에 대해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를 방문해 우군 확보 외교전에 속도를 높인다.

시진핑 주석은 순방 기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더불어 아시아 상호협력 신뢰 회의까지 참석한다.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면을 앞두고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적 밀월을 과시한 데 이어 또다시 순방길에 나서 12~14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2001년 출범해 중앙아시아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회원이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31억명이 거주하는 거대 지역협력체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최대 25%에 달하고 핵보유국만도 4개국에 이른다.

시 주석으로선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서 SCO의 지원 사격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은 순방에 앞서 키르기스스탄 매

체들에 보낸 기고문에서 “양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주권, 안보 등 핵심 이익 문제를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

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SCO 외무장관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법에 기초해 상호 존중하며 다자주의와 평등, 협력에 주력하기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 중 하이타이트는 SCO 정상회의로 거대 인구를 가진 회원국들을 결집해 미국에 최대 압박을 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14~16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열리는 아시아 상호협력 신뢰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명칭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중국 주도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으려는 중국의 속내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

이처럼 시 주석은 이날 중순까지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뒤 베이징에서 숨 고르기를 하며 대미 전략을 점검한 뒤 이달 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찬 등 어떤 식으로든 양자 회동이 예상돼 미·중 무역 전쟁의 확산이나 휴전이나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실리콘밸리 동력이었던 中자본 이제는 독”

WSJ 보도...미중 무역분쟁 격화 후 중국 자본 꺼려

한때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로 한때 대받던 중국 자본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실리콘밸리의 동력이었던 중국 자본이 갑자기 독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말 이후 미·중 간 무역분쟁의 격화로 실리콘밸리에서 중국 자본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파일럿 AI 랩스’는 한 사례다.

이 회사는 중국계 벤처캐피털 ‘디지털 허라이즌 캐피털’을 첫 대형 투자자로 맞이했다. 하지만 작년 여름이 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미 국방부와 일한 뒤 자신들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미 정부에 더 많이 팔고 싶어진 이 회사는 이 투자자와 중국 정부 간 유대 사업에 해가 될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벤처 투자사 회장에게 자사 주식을 되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화를 내며 이를 거부했다.

WSJ은 “중국 투자자들은 한때 그들의 자금줄 때문에, 그리고 세계 최대이자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실리콘밸리로부터 환대받았다”며 “지금 그들은 갑자기 덜 환영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이후 중국과 연계된 벤처 투자사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거래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사무소를 폐쇄하기도 했다.

시장조사업체 로디엄 그룹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은 지난해 초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말에는 국영 중국 투자자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 인수를 포함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16년 460억 달러(약 5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0%나 줄어든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로 주저앉았다.

이런 기류 변화의 이면에는 미국의 경제·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재능과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노력이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영국과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없다”

웅커 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의장 클라우스 웅커 위원장은 11일 EU와 영국이 체결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웅커 위원장은 이날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것(브렉시트 합의문)은 테리사 메이(영국 총리)와 웅커 간 조약이 아니라 영국과 EU 간 조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의회의 반대로 브렉시트 합의문이 승인되지 않아 당초

지난 3월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10월 말까지 연기되는 등 난항에 빠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 내에선 현재 메이 총리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웅커 위원장은 “차기 영국 총리가 누가 되든 이것(브렉시트 합의문)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와 영국의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은 수정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EU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고 48.9도...美서부 기록적 열파에 몸살

미국 북서부 오리건에서 남서부 캘리포니아-네바다-애리조나주(州) 일대가 6월 초 기온으로는 기록적인 열파(熱波)에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립기상청(NWS)과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내륙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12일 중 화씨 120도(섭씨 48.9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연중 폭염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인근은 이날 화씨 100도

(섭씨 37.8도)를 찍으면서 6월 기온으로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화씨 101도(섭씨 38.3도)를 기록한 산타로사 카운티는 1921년 이후 100년 만의 6월 열파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연중 서늘한 하프몬테이도 화씨 89도(섭씨 31.7도)를 기록, 1941년 이후 6월 기온으로 가장 더웠다.

오클랜드 도심, 몬테레이 등 캘리포니아 북부 대다수 도시가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연합뉴스



홍콩 대규모 시위에 ‘송환법’ 심사 일단 연기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홍콩 시민들이 12일 오후 홍콩 의회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홍콩 의회는 이날 대규모 시위에 법안 심사를 일단 연기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 등을 본토로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탄도미사일 탐지
조기경보위성 보유 검토
내년 센서 탑재 실험

일본이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보위성을 보유하기 위해 내년도에 발사할 인공위성에 관련 센서를 탑재해 실험을 시작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내년도 H2A 로켓으로 발사할 ‘선진광학위성’(ALOS-3)에 화상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 센서는 매우 미세한 반도체를 활용한 것으로, 2개 파장대의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센서가 미사일 발사 시 우주 공간에서 적외선을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24년까지 실험을 계속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센서의 기능이 확인되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조기경보위성을 보유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센서가 탑재될 ALOS-3은 지구관측위성으로, 고도 669km의 궤도를 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훈련을 통해 센서의 미사일 탐지 기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